

“세계화·서남권 포교 중심 도량 자리매김”

국제선센터 11월 11일 2주년 맞아

한국불교 세계화와 강서양권 등 서울 서남권 포교 전진기지인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정)가 오는 11월 11일 2주년을 맞는다. 2010년 11월 15일 개원식을 연 국제선센터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적지 않은 발전을 해왔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전경(좌).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버지니아대 학생들(위). 강서·양천 지역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을 문화강좌의 일환으로 열린 '아빠와 함께하는 사찰요리' (아래).



세계화 전진기지로서의 면모

한국불교 세계화를 기치로 출범한 도량인 만큼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국제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 국제선센터를 찾은 외국인인 800여 명, 2012년 10월 현재까지 선센터를 방문한 외국인인 900여 명을 넘어섰으며, 12월까지 1000여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20%로 증가한 수치다.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적이 다양한 해진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대부분 영미권에 머물렀던 방문객들이 이제는 유럽, 남아, 아시아 등으로 확대됐다.

주지 법정 스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선센터 프로그램 체험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수는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실제 국제선센터는 외국인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예불문과 108배 책자를 영문으로 개발해 외국인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영문판 예불문인 'Everyday Chant'는 예불의 참 의미를 알고 예불에 능동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돕고 있으며, '108 Prayers'는 종교적인 색채를 완화시킨 108가지 문구로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외국인 참여 증가 추세 관련 콘텐츠 개발 주력 올해 9월 신도회 출범 지역민 문화 강좌 신설

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책자는 국제선센터에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책이기도 하며, 일반 템플스테이 사찰에서도 적지 않은 구입 요청을 하고 있다.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인 '담마 클래스'도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참선수행과 영어법문, 대화를 결합한 '담마 클래스'는 초창기 1~2명에서 이제는 10여 명이 참여하는 정기 일요법회가 됐다.

법정 스님은 “국제선센터는 조계종 세계화 사업의 전진기지로서 사회부 국제팀 및 외국인 유관기관의 실제적인 국제분야 사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양천권 포교 중심으로 '우뚝'

국제선센터 또 다른 역할 중 하나는 서울 지역 불교 불보지인 강서·양천권의 포교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울 3대 개신교 인구 밀집지역인 양천구에 들어선 도심 포교 도량 국제선센터는 지역 불자들에게 신행의 활력을 가져왔다.

실제 국제선센터의 넓은 연경대의 신도층은 이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20~40대 남녀불자, 가족들이 신행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사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도 활발하다. 이 같이 가족 단위의 범회 참가

자가 많다보니 어린이, 청소년 범회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여러 계층들을 하나로 묶을 신도회도 창립됐다. 국제선센터는 신도회 조직을 지역, 전법대회협력, 봉사교육으로 나눠 지역사회 포교, 직능 및 계층별 포교, 센터 내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서·양천 지역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을 문화강좌 개강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특히, '요가와 선', '아빠와 함께하는 사찰요리'는 종교를 넘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하지만,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강되는 과목들도 있었던 만큼 불교와 사찰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 강좌 개발은 지속적인 숙제로 남았다.

법정 스님은 “불교만이 줄 수 있는 아이 템으로 실생활에서 효용이 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불교를 알고 싶는데 어떻게 공부할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예비 신도들을 교육 강좌를 통해 모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국제선센터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신도 세대 간 소통, 지역 범위 활성화는 국제선센터가 향후 풀어가야 할 화두다. 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신도 세대 간 소통을 위해 가족 템플스테이나 통합 참선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려 한다”며 “목동 안양천과 공원 등을 활용한 국제선센터만의 특별한 범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원 3년차부터는 내실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긴축적 재정 운영과 체계적 중무행정시스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과학원 인성교육 대안 '주목'

인실련 우수 인성교육 사례로 선정...내년 초 보급 예정

자살과 학교폭력, 교권하락 등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주지 해원) 산하 기구인 한마음과학원(기획조정실장 김용환)의 '한나무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국가 청소년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욱 한국교총연합회장·이하 인실련)은 10월 31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마음과학원의 '한나무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인성교육 모범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인실련은 학교나 개인, 사회단체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시행중인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지난 10월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우수 인성교육 실천 사례 46편을 심사평가해 가정, 사회, 학교의 세 분야로 나누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한나무인성교육'은 '학교' 부문으로, 흥사단의 '어르신자서전지 봉사'는 '사회' 부문, 조목수산 어린이재단의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가정' 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한나무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내면의 알아차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마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마음관찰 △올라오는 마음 멈추게 하기 △올라온 마음 긍정으로 바꾸기 △다시 내 마음 바라보기 등의 단계로 구성돼, 임

시강에 놓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

한마음과학원은 지난 해 초·중등용(꽃을 피우는 나무)를 발간해 교사와 학생이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워크북도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한나무인성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재는 △EBS 학습장애프로그램 △수원 세류중학교 왕따개선프로그램 △금산 간다학교 해외여행캠프 △경남 유아초등학교 △전북 진안초등학교 등에 보급돼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았다.

인실련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육계와 재계, 종교계, 민간단체 등 2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주주의 범국민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인실련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인성교육 실천 사례들을 표준화된 공식 인증프로그램체도로 도입, 인성교육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환 인실련 홍보담당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개발원, 인실련이 공동 심사 후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인증을 전달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음과학원 측은 “불교의 마음공부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낸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한나무인성교육'은 2010년 수원 세류중학교 왕따개선프로그램으로 보급돼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았다.

조계종 산악회, 제1회 등반대회 개최

공주 태화산서 300여 명 등반

조계종 산악회(회장 엄홍길)가 공주 태화산에서 10월 28일 제1회 등반대회를 열었다.

마곡사에서 열린 이날 입재식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 이기흥 중앙산도회장 등 전국 각 사찰 산악회 소속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장은 “불교는 명산마다 사찰이 있어 산행이 곧 포교”라며 “오늘 등산을 하며 포교활성화를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산을 달아가는 사람은 불보살님처럼 자비롭고 기백이 넘친다”며 “산을 타며 나 자신을 살피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00여 조계종 산악회원이 등반대회 입재식에 동참했다.

부했다.

이날 참석한 대중들은 발원문을 낭독하고 산에 올랐다. 대중들은 “산악회 회원들이 오르는 발걸음마다 생명이 숨쉬고 밝은 빛이 가득하길 원한다”며 “우리의 불심도 언제나 아름답게 타오르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장애불자모임 보리수아래, 템플스테이 체험

10월 20~21일 전남 일대 사찰 탐방

장애인불자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가 전라도 일대 사찰을 탐방하고 템플스테이에 동참해 신심을 다졌다.

보리수아래는 10월 20~21일 화원 및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전남 강진 무위사와 백련사, 영암 도갑사 등 남도 지역의 사찰을 둘러보고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도법사인 법인 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의 후원으로 일지암에서 하룻밤 머문 뒤 무위사, 백련사, 월남사지터, 도갑사, 미황사 등을 참배했다. 해남장애인복지관이 참가자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했다. 최명숙 회장은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



전남 사찰을 탐방한 보리수아래 회원들의 기념 촬영 모습.

심을 갖게 하려면 문화중심의 포교가 중요하다”며 “이번 보리수아래 회원들의 템플스테이 참여는 스님과 지역사회복지관 지원으로 이뤄져 의미가 크며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제5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요법 : 도테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